

노인의 멘토링 실태와 요구에 대한 연구

김 희 걸* · 이 금 재*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노인에게는 신체적인 변화에서 힘의 약화 현상이 나타나고, 은퇴와 더불어 경험하게 되는 경제적 불안정, 사회나 가정에서의 소외감, 죽음에 대한 공포에 이르기까지 신체적, 정신적, 사회 심리적인 면에서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노년기 공통적인 고통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및 경제적 등의 4개 문제로 크게 집약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도 노인복지를 높이기 위해 신체적인 문제에 대해 의료보장 프로그램을, 경제적 문제에 대해 소득보장 프로그램을, 그리고 심리적 및 사회적 문제에 대해 주거보장 및 사회 서비스 보장 프로그램 등으로 분야별로 제도를 마련하여 실천하고 있다.

이런 노인 문제들 가운데 고독감과 소외감, 그리고 좌절감과 같은 사회적, 심리적 문제는 노인의 역할 상실과 핵가족화 그리고 고도로 산업화·도시화된 서구 사회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고통으로 노인들에게 심각한 문제이다. 특히 우리나라 노인들이 겪는 소외감이나 고독감은 정신적, 사회적으로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채 노년기에 닥치게 될 뿐 아니라, 노후를 자식의 지지에 기대하는 전통가치가 붕괴됨에 따라 노후를 준비하고 처음부터 노후를 자식의 지지에 기대하지 않는 서구 사회의 노인보다도 훨씬 더 심각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들은 노후의 심리적 지지를 얻고, 외로움과 고독감을 줄일 수 있도록

누구에게 의지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게 된다(Brunner, 1990). 사회적 심리적 지지가 필요한 노인들도 이러한 도움을 통해 사회적 심리적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노인이 겪는 사회적 및 심리적 노인 문제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방법으로 멘토링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멘토링은 한 사람이나 여러 사람이 다른 사람과 일정한 관계를 맺고서 그를 격려하고, 돌보고, 지원하고, 이끌고 봉사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Burke, 1984; Scandura, 1992). 멘티는 멘토링을 통해 부정적인 행동 성향을 감소시키고, 안녕을 증가시키고, 그리고 정서를 안정시키며, 나아가 가족 관계를 포함한 사회의 인간관계 질을 향상시킨다(Kram, 1983; Noe, 1988; Scandura, 1992). 또한 미국 B.B.S 멘토링 프로그램의 결과, 멘토링은 가족 관계를 포함한 사회의 인간관계의 질이 향상되는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ierney, Grossman, & Resch, 1995). 이와 같이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멘토링은 노인에게도 안녕을 증가시키며, 정서를 안정시키고, 나아가 가족 관계를 포함한 사회의 인간관계의 질이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멘토링은 현재 기업, 행정, 종교, 교육, 간호, 스포츠 등 여러 분야에서 공식적 및 비공식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학생 지도 분야에서 멘토링이 생활 만족, 학교 적응, 자아 회복 등과 같은 정서 안정에 긍정

* 경원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간호학과 부교수(교신저자 김희걸 E-mail: hgkim@kyungwon.ac.kr)
투고일: 2008년 10월 29일 심사완료일: 2008년 12월 16일

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ang, 2006; Kim, 2006; Chun,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 멘토링 제도의 도입이 우리나라 노인들이 겪고 있는 소외감이나 고독감을 해소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대안적 프로그램으로 판단하여 그 제도를 도입을 위한 기초적인 근거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재가 노인들을 대상으로 멘토링의 실태와 요구도를 파악함으로써 노인의 사회 심리적 지지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노인들의 멘토링과 관련된 특성을 파악한다.
- 2) 멘토링 경험군의 멘토링 실태와 만족도를 파악한다.
- 3) 노인들의 멘토링과 관련된 요구도를 파악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노인의 멘토링 실태를 파악하여 멘토링 프로그램 도입방안을 마련하고자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재가노인으로 언어적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설문지 내용에 대한 질문을 이해하고 응답할 수 있는 자로서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를 편의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총 210명이었다.

3. 연구 도구

본 연구도구는 사전조사로 멘토링에 대해 연구진이 직접 노인을 면담한 자료와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였으며, 멘토링 형성과 관련된 사항은 Lee(2006)의 연구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노인의 일반적 상태와 멘토링의 경험 유무, 멘토링과 관계없이 공통적인 문항으로는 멘토링 형성 어려움의 여부 및 그 이유, 멘토링 형성 여부

등 3문항이며, 멘토링이 없는 경우에는 멘토링 요구 및 그 이유, 멘토의 성과 나이 및 주선, 멘토링 주기와 방법 등 9문항을, 멘토링이 있는 경우에는 멘토의 성과 나이 및 주선, 멘토링 받은 기간, 방법 및 주기, 멘토링 만족도 등 8문항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이들 설문 문항은 명목척도와 등간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등간척도는 노인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3점 리커트 척도로 하였다.

4.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08년 4월 1일부터 2008년 5월 30일까지로 경기도 성남시의 1개구에서 그 지역의 경로당과 보건소를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재가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지 작성은 연구자가 연구대상 노인에게 직접 설문 문항을 읽어 주고 노인이 그에 해당하는 내용의 번호를 응답하면 연구자가 그 응답 내용의 번호를 기록하는 방법과 연구자가 연구대상 노인에게 설문지를 배포하면 연구대상 노인이 직접 읽고 응답하는 방법을 병행하였다.

5. 분석 방법

설문지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는 SPSS/PC+ 10.0의 통계처리 패키지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자료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멘토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 2) 멘토링 특성별 차이 검증은 Chi-square test, t-test를 이용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 노인 210명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고, 성별로는 남성 39명(18.6%), 여성 171명(81.4%)으로 여성노인이 더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80세 이상이 69명(32.9%)으로 가장 많았다.

학력은 무학이 100명(47.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초등학교 졸업 48명(22.9%)이었으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126명(60.0%)이었다. 거주형태는 아들과 함

게 사는 경우가 72명(34.3%)으로 가장 많았고, 혼자 사는 경우 60명(28.6%), 노인부부끼리만 사는 경우 54명(25.7%) 순이었다.

직업은 176(83.8%)명이 가지고 있지 않았고, 월수입은 51만원에서 100만원 사이가 136명(64.8%)로 가장 많았고, 50만원 미만도 33명(15.7%)로 백만원 미만이 대부분이었다. 종교는 불교가 87명(41.4%)으로 가장 많았고, 종교가 없다고 한 경우가 58명(27.6%)이었다.

2. 멘티(Mentee) 경험 유무에 따른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 노인들의 멘토링 경험 유무에 있어서는 <Table 1>에서와 같이, '멘토링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와 '멘토링을 받고 있거나 받은 적이 있는 경우'가 각각

67.1%, 32.9%로 조사되어 노인의 멘토링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멘토를 받은 군과 받은 적이 없는 군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 남자노인이 멘토링을 받는 경우가 28.2%, 여자는 33.9%로 성별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chi^2 = 1.080, p = .299$). 연령별로는 70세 미만에서 멘토링을 받은 군이 46.8%로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chi^2 = 6.467, p = .091$). 교육수준, 배우자 유무, 동거가족 형태, 종교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못했다(Table 1). 다만, 월수입에서 백만원~백오십만원이 46.4%, 백오십만원 이상인 경우 46.2%로 수입이 적은 경우보다 높았지만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chi^2 = 6.952, p = .058$).

<Table 1> Comparison of General Characteristics between the Elders Who had the Mentee Experience and Those Who did not (n=210)

| Characteristics | Total n(%) | Experience as a Mentee | | χ^2 or t | p |
|--------------------------------|---------------------------|------------------------|---------------------|---------------|------|
| | | Yes (n=69) n (%) | No (n=141) n (%) | | |
| Gender | Male | 39(18.6) | 11(28.2) | 1.080 | .299 |
| | Female | 171(81.4) | 58(33.9) | | |
| Age (years) | 65 - 69 | 47(22.4) | 22(46.8) | 6.467 | .091 |
| | 70 - 74 | 43(20.5) | 10(23.3) | | |
| | 75 - 79 | 51(24.3) | 14(27.4) | | |
| | 80 ≤ | 69(32.9) | 23(33.3) | | |
| Education | None | 100(47.6) | 28(28.0) | 5.818 | .213 |
| | Elementary school | 52(24.5) | 18(34.6) | | |
| | Middle school. | 33(15.7) | 16(48.5) | | |
| | High school. College ≤ | 20(9.0) 6(2.9) | 7(31.6) 18(68.4) | | |
| Spouse | Yes | 84(40.0) | 22(26.2) | 2.715 | .099 |
| | No | 126(60.0) | 47(37.3) | | |
| Living arrangement | Living alone | 60(28.6) | 19(31.7) | 4.044 | .400 |
| | Living with a spouse only | 54(25.7) | 16(29.6) | | |
| | Living with a son | 72(34.3) | 23(11.0) | | |
| | Living with a daughter | 14(6.7) | 8(57.1) | | |
| Employ-ment | Yes | 34(16.2) | 11(32.4) | 1.987 | .285 |
| | No | 176(83.8) | 58(33.0) | | |
| Monthly income (10,000 Won) | ≤50 | 33(15.7) | 6(18.2) | 6.952 | .058 |
| | 51~100 | 136(64.8) | 44(32.4) | | |
| | 101~150 | 28(13.3) | 13(46.4) | | |
| | 151≤ | 13(6.2) | 6(46.2) | | |
| Religion | Buddhist | 87(41.4) | 26(29.9) | 5.104 | .352 |
| | None | 58(27.6) | 20(34.5) | | |
| | Protestant | 38(18.1) | 13(34.2) | | |
| | Catholic | 24(11.4) | 9(37.5) | | |
| | Others | 3(1.4) | 1(33.3) | | |

<Table 2> Perceive Easiness in Building a Mentor-Mentee Relationship (n=210)

| | Experience as a Mentee | | Total | χ ² | p |
|----------|------------------------|----------|-----------|----------------|-------|
| | No | Yes | | | |
| Easy | 43(30.5) | 40(58.0) | 83(39.5) | 14.631 | <.001 |
| Not easy | 98(69.5) | 29(42.0) | 127(60.5) | | |

3. 멘토링 관계에 대한 인식

조사대상 노인들의 멘토링 형성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멘토링 형성이 쉽다고 생각하는 경우'와 '멘토링 형성이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각각 39.5%, 60.5%로 멘토링 형성이 쉽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멘토링 형성 생각에 대한 조사대상 노인의 멘토 유무에 따른 차이에 있어서는 <Table 2>에서와 같이, 멘토링 경험에 따라 멘토링 형성에 대한 생각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χ²=14.631, p<.001). 특히 멘토가 있는 대상자의 경우 멘토링 형성이 쉽다고 58.1%가 응답한 반면, 멘토가 없는 대상자는 멘토링 형성이 어렵다가 69.5%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001).

또 멘토링 형성이 쉽지 않다고 응답한 조사대상 노인들의 그 이유에 있어서는 '마땅한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가 29.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부탁하기가 쉽지 않아서', '사람이 많지 않아서', '받아내기 어려워' 등의 순으로 각각 26.8%, 16.5%, 11.8%로 응답하였다(<Table 3>).

<Table 3> Reason Why It Is Uneasy To Build a Mentor-Mentee Relationship(n=127)

| Reasons | n | % |
|---|-----|-------|
| Difficulty to find suitable mentor | 37 | 29.1 |
| Uneasiness to request someone to be a mentor | 34 | 26.8 |
| Few available persons as a mentor | 21 | 16.5 |
| Difficulty to obtain consent from a possible mentor | 15 | 11.8 |
| Feeling Unaccepted by Peers | 6 | 4.7 |
| Others | 14 | 11.0 |
| Total | 127 | 100.0 |

4. 멘토링을 경험한 군에 있어서 멘토링 실태와 만족도

멘토링을 경험한 노인들의 경우 '여자멘토'에게 받은 적이 62.1%로 나타나 37.9%인 '남자'보다 훨씬 많았다. 멘토의 나이는 '동연배'가 40.7%로 가장 많았고, '연하', '연상'의 순으로 각각 37.3%, 22.0%이었다(<Table 4>).

멘토링을 추천한 곳은 '주변 사람의 추천'이 39.7%로 가장 많았고, '사회봉사 단체의 추천', '종교단체의 추천', '자기 스스로 찾음'이 각각 31.9%, 12.7%, 12.7%로 나타났다. 멘토링 기간은 '1년 이상'이 68.7%로 가장 많았고, '1년 정도', '여섯 달 정도', '적 달 정도'의 순으로 각각 11.9%, 10.4%, 9.0%로 나타났다.

멘토링 방법은 '직접 만나는 방법'이 79.1%로 가장 많았으며, '전화 등의 방법', '기타' 등의 순으로 각각 11.9%, 9.0%로 나타났다. 멘토링 회수는 '한 주에 두 번꼴'이 50.8%로 가장 많았고, '한 주에 한 번꼴', '한 달에 한 번꼴', '두 주에 한 번 꼴' 등의 순으로 각각 23.1%, 16.9%, 9.2%로 나타났다.

멘토링의 효과에 대해서는 '도움이 된 경우'가 85.5%이었고, '도움이 되지 않은 경우'가 1.4%로 나타났다.

5. 멘토링 경험이 없는 군의 멘토링 요구

멘토가 없다고 응답한 대상자중에서 '멘토링 받는 것을 본 적이 있는 경우'가 37.6%, '본 적이 없는 경우'가 68.8%로 나타났다. 그러나 멘토가 없는 노인들은 멘토링을 형성할 기회가 주어질 경우 '형성하고 싶다는 경우'가 67.3%로 '별 생각이 없다는 경우'의 32.7%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Table 5>).

멘토링 경험이 없는 노인들이 멘토링을 형성할 기회가 주어질 경우 멘토링을 형성하고 싶은 이유로 '외롭고 쓸쓸해서'가 전체 응답의 58.9%로 가장 많았다. 반면에 멘토링에 대해 별 생각이 없는 이유로 '부담이 될 듯하여'가 전체 응답의 50.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 '혼자나 배우자와 있어도 충분해서'의 순으로 각각 23.9%, 17.4%로 나타났다(<Table 5>).

멘토가 없는 노인들이 바라는 멘토의 특성에서는 '여자멘토'를 원하는 경우가 85.0%로 15.0%인 '남자멘토'보다 훨씬 많았다. 멘토의 나이는 '동연배'가 65.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연하'가 28.8%, '연상' 6.1%로 나타났다.

멘토를 추천해 주기를 바라는 곳으로 '어떤 추천지든

(Table 4) Preferred Characteristics of a Mentoring Program among the Elders Who had the Mentee Experience (n=69)

| Characteristics | | n(%) |
|---|---|----------|
| Preferred gender of a mentor | Male | 26(37.9) |
| | Female | 43(62.1) |
| Preferred age of a mentor | Younger | 26(37.3) |
| | Same age | 28(40.7) |
| | Older | 15(22.0) |
| Preferred person/organization who helps find a mentor | Public health Center or District Office | 4(5.8) |
| | Religious organization | 9(13.0) |
| | Social Service Organization | 22(31.9) |
| | Neighbour | 27(39.1) |
| | Himself/herself | 6(8.6) |
| Preferred mentoring duration | Anyone / don't Care | |
| | About 3 months | 6(8.7) |
| | About 6 months | 7(10.1) |
| | About 1 year | 9(13.0) |
| Preferred contact method | Above 1 year | 47(68.1) |
| | Face to face | 55(79.1) |
| | Telephone | 8(11.9) |
| | Others | 6(9.0) |
| Preferred contact frequency | Twice a week | 35(50.8) |
| | Once a week | 16(23.1) |
| | Once every two weeks | 6(9.2) |
| | Once a month | 12(16.9) |
| Evaluation of a mentoring program | Helpful | 1(1.4) |
| | Not sure | 9(13.0) |
| | Not helpful | 59(85.5) |

(Table 5) Preferred Characteristics of a Mentoring Program among the Elders who never had a Mentee Experience (n=141)

| Characteristics | | n(%) |
|---|---|-----------|
| Have heard about a mentoring program | Yes | 53(37.6) |
| | No | 97(68.8) |
| Intend to have a mentee experience later | Yes | 95(67.3) |
| | No | 46(32.7) |
| Preferred gender of a mentor | Male | 21(15.0) |
| | Female | 12(85.0) |
| Preferred age of a mentor | Younger | 41(29.0) |
| | Same age | 92(65.2) |
| | Older | 8(.8) |
| Preferred person/organization who helps find a mentor | Public health center or district office | 24(17.2) |
| | Religious organization | 22(15.7) |
| | Social Service Organization | 16(11.2) |
| | Neighbour | 20(14.2) |
| | Himself/herself | 18(12.7) |
| | It doesn't matter | 41(29.1) |
| Preferred contact method | Face to face | 116(82.2) |
| | Telephone | 17(11.9) |
| | Others | 8(5.9) |
| Preferred contact frequency | Twice a week | 19(13.5) |
| | Once a week | 44(31.2) |
| | Once every two weeks | 21(14.9) |
| | Once a month | 57(40.4) |

상관없다'의 경우가 29.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보건소나 구청 등의 주선', '종교단체의 주선', '주변 사람의 주선', '내 스스로 찾은 사람' 등의 순으로 각각 29.1%, 15.7%, 14.2%, 12.7%로 나타났다.

멘토링 방법으로는 '직접 만나는 방법'이 82.2%로 가장 많았으며, '전화 등에 의한 방법', '기타'가 각각 11.9%, 5.9%의 순으로 나타났다. 멘토링 회수로는 '한 달에 한 번꼴'이 41.4%가 가장 많았고, '한 주에 한 번 꼴', '두 주에 한 번꼴', '한 주에 한 번꼴'의 순으로 각각 30.1%, 15.0%, 13.5%로 나타났다.

6. 멘토링 경험유무에 따른 멘토링 요구의 차이

멘토 경험 유무에 따라, 실제 경험한 멘토와 경험하지 않은 군의 '원하는 멘토의 성'에 있어서는 경험한 사람들이 더 여성을 선호하였으며($\chi^2=12.179$, $p<.001$), '멘토의 나이'는 '동년배'를 선호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hi^2=14.641$, $p=.001$).

멘토링 주선에 있어 멘토 경험군은 '관계없다', '보건소나 구청' 순인데 비해, 멘토가 없는 경우에는 '주변사람', '사회봉사 단체'를 선호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hi^2=45.382$, $p<.001$).

멘토링 회수는 멘토 경험군이 '한 주에 한 번 꼴'이 많은 반면, 멘토가 없는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꼴'을 선호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chi^2=33.211$, $p<.001$),

<Table 6> Reason for Wanting or Not Wanting to have a Mentee Experience (n=141)

| Reasons | | n. | % |
|----------|--|----|-------|
| Want | Loneliness and lonesomeness | 56 | 58.9 |
| | Hopelessness and despair | 29 | 30.5 |
| | Experience of being excluded from peers | 1 | 1.1 |
| | Others | 8 | 8.4 |
| | Total | 95 | 100.0 |
| Not want | Feeling burden when meeting stranger | 23 | 50.0 |
| | No perceived benefits | 11 | 23.9 |
| | Satisfied with the his/her life without a mentor | 8 | 17.4 |
| | Others | 4 | 8.7 |
| | Total | 46 | 100.0 |

<Table 7> Comparison of Preferred Characteristics of a Mentoring Program between the Elders who had the Mentee Experience and those who did not (n=210, %)

| Characteristics | Experience as a mentee | | χ^2 | p | |
|---|---|---------------|----------|--------|-------|
| | Yes (n=69) | No (n=141) | | | |
| Preferred gender of a mentor | Male | 21(15.0) | 26(37.9) | 12.179 | <.001 |
| | Female | 12.(85.0) | 43(62.1) | | |
| Preferred age of a mentor | Younger | 41(29.0) | 26(37.3) | 14.641 | .001 |
| | Same age | 92(65.2) | 28(40.7) | | |
| | Older | 8(5.8) | 15(22.0) | | |
| Preferred person/organization who helps find a mentor | Public health center or district office | 24(17.2) | 4(5.8) | 45.382 | <.001 |
| | Religious organization | 22(15.7) | 9(13.0) | | |
| | Social service organization | 16(11.2) | 22(31.9) | | |
| | Neighbour | 20(14.2) | 27(39.1) | | |
| | Himself/herself | 18(12.7) | 6(8.6) | | |
| | It doesn't matter | 41(29.1) | - | | |
| Preferred contact method | Face to face | 116(82.2) | 55(79.1) | .647 | .724 |
| | Telephone | 17(11.9) | 8(11.9) | | |
| | Others | 8(5.9) | 6(9.0) | | |
| Preferred contact frequency | Twice a week | 19(13.5) | 35(50.8) | 33.211 | <.001 |
| | Once a week | 44(31.2) | 16(23.1) | | |
| | Once every two weeks | 21(14.9) | 6(9.2) | | |
| | Once a month | 57(40.4) | 12(16.9) | | |

멘토링 방법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chi^2 = .647, p = .724$).

IV. 논 의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멘토링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는 멘토를 경험한 군과 경험하지 않은 군사이의 연령, 성, 종교유무, 학력, 배우자유무, 월수입, 거주형태 등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멘토링을 형성하지 않은 경우가 멘토링을 형성한 경우에 비해 2배 이상 많았고, 여자노인의 경험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대부분의 남성들이 멘토관계 형성에 더 많은 장애물들을 직면하고 있다는 Noe(1998)와 Ragins(1989)의 연구 결과와 같이 조사대상의 경우 여자노인이 많아 동일한 연구결과를 보였다. 특히 멘토가 없는 경우에는 '멘토링 형성이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쉽다고 생각하는 경우'보다 더 많았고, 멘토가 있는 경우는 '멘토링 형성이 쉽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보다 더 많아, 멘토와 함께 보낸 시간이 많아질수록 멘토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느낀다는 Allen, Pottet와 Burroughs(1997)의 연구 결과와 동일하였다.

'멘토링 형성이 쉽지 않다'고 응답한 노인들의 그 이유로는 '마땅한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서'가 가장 많았고 '부탁하기가 어려워서', '사람이 많지 않아서', '받아내기가 어려워서' 등이었는데, 이러한 연구 결과는 사회적 활동이 제한된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멘토를 구하기 어렵고 멘토에의 접근이 제한되어 있다는 Ragins와 Cotton(1991)의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노인의 경우에도 멘토를 구하기 어렵고 멘토에의 접근이 제한되어 있어 멘토링이 쉽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멘토가 없는 노인들은 멘토링을 형성할 기회가 주어질 경우 '형성하고 싶다는 경우'가 '별 생각이 없다는 경우'보다 2배 이상 높았고, 별 생각이 없는 이유로는 '부담이 될 듯하여'가 가장 많았고,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 '혼자나 배우자와 있어도 충분해서'의 순이었다. 한편 멘토링을 형성하고 싶은 이유로 '외롭고 쓸쓸해서'가 가장 많았고, '희망이나 기대가 없어서', '외톨이로 따돌림' 등이 조사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멘토링이 정서적 안녕을 증진시킨다는 Jung(2002), Freedman(1993)과 Foster(2001)과 같이 노인들이 멘토링을 통해 정서적

으로 안녕을 얻고 싶어함을 시사하였다.

멘토의 성에 있어서 멘토가 있는 경우는 '여자멘토'가 '남자멘토'보다 많아서 멘토경험이 없는 군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러한 연구 결과는 남성 멘토가 여성 멘토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보고한 Jung(2001)의 연구 결과와 상반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노인의 경우 남성보다는 여성을 선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여성노인들이 동일성의 멘토를 선호하는 것에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멘토의 나이에 대해 멘토가 없는 노인들은 '동년배', '연하', '연상' 순이었으나, 멘토가 있는 경우는 '연상의 멘토'가 거의 없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자신이 멘토와 유사하다고 지각할수록 멘티가 느끼는 멘토링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제안한 Ensher & Murphy(1997)의 연구 결과를 지지한 것으로 노인의 경우 동년배 내지 연하의 멘토를 통해 사회적 심리적 고통을 해소할 수 있고, 특히 노인의 고독감이나 소외감을 예방하거나, 또는 사후적으로 치유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멘토링 방법에 있어서는 멘토가 없는 노인들의 경우 '어떤 주선이든 상관없다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보건소나 구청 등의 주선', '종교단체의 주선', '주변 사람의 주선', '내 스스로 찾은 사람' 등의 순으로 많았다. 그러나 멘토가 있는 노인들의 경우에는 '주변 사람의 주선'이 가장 많았고, '사회봉사 단체의 주선', '종교단체의 주선', '자기 스스로 찾음' 등의 순으로 나타나 멘토가 없는 경우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멘토링 방법으로 멘토가 없는 노인들과 있는 노인들 모두 '직접 만나는 방법'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전화 등의 방법'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멘토링 회수에 대해 멘토가 없는 노인들의 경우 '한 달에 한 번꼴'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한 주에 한 번꼴', '두 주에 한 번꼴', '한 주에 한 번꼴'의 순이었다. 그러나 멘토가 있는 노인들의 경우에는 '한 주에 두 번꼴'이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한 주에 한 번꼴', '한 달에 한 번꼴', '두 주에 한 번 꼴' 등의 순이었다. 멘토링 회수에 대해 멘토의 유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며, 멘토가 없는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꼴'이 가장 많게 나타났지만, 멘토가 있는 경우는 '한 주에 한 번 꼴'이 가장 많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멘티가 멘토와 자주 만나는

경우에 보다 많은 멘토링 기능을 지원받고 관계에 대한 만족도도 높다는 Viator(1999), Allen 등(1997), Noe(1988), Ensher와 Murphy(1997)의 연구 결과와 같이 멘토링 회수가 많을수록 멘토링을 통해 사회적 심리적 지지를 얻고, 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음을 지지하였다.

멘토가 있는 노인들의 경우 멘토링이 도움이 된 경우가 도움이 되지 않은 경우보다 더 많았다. 이는 멘토링이 멘토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Kang, 2006)의 연구 결과, 멘티에게 부정적인 행동 성향을 줄인다는 Foster(2001)의 연구 결과, 그리고 안녕을 증가시킨다는 Freedman(1993)과 Foster(2001)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 나타난 노인의 멘토링 실태와 요구를 살펴보면 노인들은 실제 멘토링을 원하지만 받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멘토링을 받는다면, 멘토는 자신과 비슷한 동년배의 동성자를 선호하였으며, 멘토를 어느 기관 혹은 누가 추천하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지만, 자주 만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멘토링을 받은 노인들의 대부분이 멘토링을 통해 도움을 받았다고 조사되어, 노년기의 사회심리적 지지를 위해 노인보건사업에 있어서 멘토링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활성화 시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노인의 멘토링 실태와 요구를 파악하여 노인보건사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210명의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2008년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가정방문을 통하여 구조화된 설문조사를 실시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수집된 자료는 SPSS로 빈도와 백분율, Chi-square test,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주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들의 멘토링 경험에서 '멘토링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와 '멘토링을 받거나 받은 적이 있는 경우'가 각각 67.1%, 32.9%로 나타났으며, 멘토링 형성이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멘토링 형성이 쉽고 생각하는 경우보다 많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 배우자 유무, 동거가족, 종교, 월수입 등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멘토가 없는 노인들은 마땅한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져 멘토링 형성이 쉽지 않다고 하였으며, 멘토링을 형성할

기회가 주어질 경우 '멘토링을 형성하고 싶다'가 '별 생각이 없다'보다 2배 이상 많았다. 멘토링에 대해서 '외롭고 쓸쓸'해서 멘토링을 형성하고 싶다고 응답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멘토링을 형성할 생각이 별로 없는 이유로는 '부담이 될 듯하다'로 나타났다.

멘토링 요구에서 멘토의 성은 멘토링 경험자와 비경험자 모두 여자가 남자보다 선호되었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멘토의 나이에 대해 멘토가 없는 노인들과 있는 노인들 모두 '동연배'가 가장 많았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멘토링 주선 주체에 대해 멘토가 없는 노인들의 경우 어떤 주선이든 상관없다는 경우가 가장 많았지만, 멘토가 있는 노인들의 경우에는 주변 사람의 주선이 가장 많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멘토링 방법으로 멘토링 경험 유무와 관계없이 노인들 모두 직접 만나는 방법이 가장 선호하였다. 멘토링 회수에 대해 멘토가 없는 노인들의 경우 '한 달에 한 번꼴'이 가장 많았으나, 멘토가 있는 노인들의 경우에는 '한 주에 두 번꼴'로 조사되었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멘토링을 경험한 노인들은 멘토링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이상의 분석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로 본 연구 결과에서 멘토링 경험이 없는 노인들도 기회가 되면 멘토링을 받고자 하고, 멘토링을 받은 경우 사회심리적 지지측면에서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하여, 향후 노인 멘토링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둘째로 노인 멘토링 프로그램 개발에서 멘토의 성, 연령, 접촉방법, 횟수, 주선기관, 내용 등을 구성할 때 본 연구결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가 특정 지역과 대상자에 국한되어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노인 멘토링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Allen, T. D., Pottet, M. L., & Burroughs, S. M. (1997). The mentor's perspective: A qualitative inquiry and future research agenda.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1*, 70-89.

- Brunner, L. S. (1990). *Medical-surgical nursing*, New York: Lippincott, 44-47.
- Burke, R. J. (1984). Mentoring in organizations, *Group and Organization Studies*, 13, 169-174.
- Chun, R. K. (2007). *The relationships between high school athletic students' recognition on monitoring and their self-efficacy*, Unpublished master's thesis, Department Education a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 Ensher, E. A., & Murphy, S. E. (1997). Effects of race, gender, perceived similarity, and contact on mentor relationship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0, 460-481.
- Foster, L. (2001). *Effectiveness of mentor program: Review of the literature from 1995 to 2000*, Sacramento: California Research Bureau.
- Freedman, M. (1993). *Kindness of strangers: Reflections on mentoring movement*. New York, NY: Ford Foundation.
- Jung, H. S. (2001). Career's development and mentoring of women' manager. *Journal of Small business Studies, the Korea Association of Small Business Studies*, 23(3), 335-382.
- Jung, Y. K. (2002). A study on moderating effects of mentor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ole stress and work-related outcomes among local pubic service. *Journal of Korean Local Government Studies, the Korea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Studies*, 39, 9, 85-103.
- Kang, J. A. (2006). Mentoring as strategy rearing manpower. *KEF Compensation Quarterly*, 14(1), 52, Spring, 3-20.
- Kim, S. W. (2006). *Impacts of mentoring on athletes' satisfaction and intentions to dropou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 Kram, K. E. (1983). Phases of mentor relationship.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26, 608-626.
- Lee, S. Y. (2006). A study on the mentoring system for female public servants. *Journal of Social Science, Myungji Universirty*, 25(1), 107-122.
- Noe, R. A. (1988). An investigation of the determinants of successful assigned mentoring Relationships, *Personnel Psychology*, 41, 457-479.
- Ragins, B. R., & Cotton, J. L. (1991). Easier said than done: Gender differences in perceived barriers to gaining a mentor.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4(4), 939-951.
- Ragins, B. R. (1989). Barriers to mentoring: The female managers' dilemma. *Haman Relations*, 42(1), 1-22.
- Scandura, T. A. (1992). Mentorship and career mobility: An empirical investigation. *Journal of Organization Behavior*, 13, 169-174.
- Tierney, J. P., Grossman, J. B., Resch, N. L. (1995). *Making a difference: An impact study og big brothers big sisters*, Philadelphia: Public/Private Venture.
- Viator, R. E. (1999). An analysis of formal mentoring programs and perceived barriers to obtaining a mentor at large public accounting firms. *Accounting Horizons*, 13, 37-53.

- Abstract -

A Survey on Elders' Experience in and Preference for a Mentoring Program

Kim, Hee Gerl · Lee, Kum Jae**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elders' experience in a mentoring program and preferred characteristics of the program. **Methods:** Two hundred and ten elders dwelling in Sungnam-si, Korea participated in the survey from April 1 to May 30, 2008. Using SPSS Win 10.0, descriptive statistics, Chi-square test, and t-test were performed. **Result:** About two thirds of the elders had experience as a mentee, and a large number of them reported that it was helpful. Compared to those without, the elders with the mentee experience were more likely to perceive that it is easier to build

a mentor-mentee relationship. The most common reason for wanting a mentee experience was loneliness, whereas the most frequent reason for not wanting was feeling a burden when meeting a stranger. Preferred characteristics of a mentoring program differed between the elders who had the mentee experience and those who did not. **Conclusion:** This study concluded that a mentoring program is highly likely to provide psycho-social support to the elderly. Also, a large number of the elders who had never had a mentor-mentee relationship wanted to have it in the future. This study suggests that healthcare professionals include a mentoring program in healthcare services for the elderly, considering preferred characteristics of a mentor-mentee relationship.

Key words : Mentoring, Needs, Preference, Older adults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yungwon University